

# 발간사

ICT는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모든 시장 이해당사자가 공존하는 비즈니스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입니다. ICT가 가진 이러한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ICT가 관련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채널의 구축과 시장으로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총체적인 지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 경제는 자본과 노동력 중심의 경쟁체제에서 정보와 지식 중심의 경쟁체제로, 그리고 최근에는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융합 중심의 경쟁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진행 중인 다양한 유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새로운 지식의 신속한 창출과 전 산업으로의 확산, 그리고 확산된 지식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생태계의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ETRI는 원천·핵심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관계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인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신 시장과 일자리 창출’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ETRI는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 지원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들의 사업기회 발굴을 지원하고자 “ETRI 기술예고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ETRI 기술예고제”는 ETRI에서 개발 예정인 기술의 개요, 개발 일정, 예상 결과물, 기술성, 시장성 및 활용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기업들에게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ETRI 기술예고제는 대외적으로는 기업들이 ETRI가 개발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내적으로는 연구 분야 별로 협력 방안 모색 및 기술사업화 추진 전략 수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TRI는 국가경제를 견인할 대형 융·복합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최적의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R&D 경험의 활용과 IPR 관리를 통해 산·학·연 협력연구를 선도하는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전략기술 아젠다를 선도하는 개방형 협동연구(Open R&BD) 플랫폼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사업화전주기 지원체제로 “ETRI-중소 중견기업 어깨동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도부터는 기술사업화 혁신 전략으로 R&D사업화 전용 프로그램 신설 및 중소기업 지원체계혁신을 통해, 1백개의 기술창업 1만명의 고용창출 1조원의 매출 증대 효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백(百) 만(萬) 조(兆) 성과확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ETRI 기술예고제’는 ETRI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실행의 일환이며, 사업화 주체인 기업에게 널리 활용되어 기업들의 신사업기회 발굴, 공공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성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2014년도 ETRI 기술예고제”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사업화본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또한 사회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주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ETRI 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4년 7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흥남